

광양시, '망덕산~배알도' 집라인 설치사업 '재개'

8월 중 기술 제안받아 9월 중 공법 선정...연내 공사 재개 활강시설 4라인·회수시설 1라인 길이 898m규모 액티비티

광양시가 중단됐던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인 망덕산-배알도 간 공중하강 체험시설(집라인)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시는 8월 중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기술 제안을 받고 9월에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법을 선정해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존 출·도착대 활용, 주변 경관 및 환경 고려,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및 자재 등을 기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망덕산-배알도 간 집라인은 활강시설 4라인과 회수시설 1라인으로 구성된 길이 898m 규모로 탁 트인 조망과 짜릿한 액티비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재계약을 위한 후속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만큼 이달 중 기술 제안을 공모하고 다음달에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미 설치된 출·도착대와 연계 공법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라인이 준공되면 망덕산-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섬정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망덕포구와 연계해 역사, 문화, 캠핑, 액티비티를 두루 갖춘 관광거점으로 해양관광수요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2019년 12월 집라인 설치 공사에 착공, 2021년 10월 출·도착대 설치를 완료했으나 입찰 시 서류상의 문제로 2022년 12

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 회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재계약을 위한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해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광양=김현근기자



고흥군, 이륜차(오토바이)

출장 정기검사 받으세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9개 읍·면사무소

고흥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면 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검사 대상이 확대됐으나,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고령읍에만 있어 이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21일 오전 동강면을 시작으로 25일 대서면까지 5일간 9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검사 대상자 207명에게 우편 및 문자 발송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수수료(1만 5천 원)를 준비하면 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2023년 폭염 대응

무더위 쉼터 활성화 교육

보성군은 강도 높은 폭염 상황에서 지역민의 무더위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27개소에 '무더위 쉼터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 활성화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녹차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비즈공예, ▲전통예술(판소리) 체험 등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군은 폭염 대책 기간인 9월까지 총260여 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쿨 스킨, 쿨 토시, 부채 등 8,000개의 폭염 안전 물품을 제작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강도 높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군민께서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물 섭취와 휴식 등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라며 "무더위 쉼터가 폭염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여가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르신 남도 안전 학당 교육을 125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성=김영순기자

순천정원박람회 안전한 국제행사 두각

스마트관제시스템 해외서도 배우러 와

사우디아라비아 행안부 자국에 웨어러블 캠 등 도입 위해 박람회장 내방

정원도시를 추구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안전한 국제행사 운영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지금까지 570만 관람객을 유치, 60만 평에 달하는 박람회장을 운영하면서도 무사고 박람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드론과 웨어러블캠을 활용한 최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이 큰 몫을 해내면서 국내외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오후 2시 사우디아라비아 행안부가 최첨단 ICT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 사우디 측은 지난 7월, 스마트관제시스템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러고자 순천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조직위는 드론 관제 및 웨어러블캠을 활용한 상황 시연을 통해 CCTV 관제센터와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대응 명령, 상황 대처까지 안전 시스템 작동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관전한 사우디아라비아 행안부 직원은 "상공에서는 드론이, 육지에서는 웨어러블캠으로 빈틈없이 박람회장의 안전을 지키는 모



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자국에 적극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제영 사무총장은 "193ha에 이르는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첨단장비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혁신적인 안전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조직위 ICT활용 통합관제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서울디자인재단, 광양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이 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다. "광활한 권역과 다수인원이 모이는 박람회의 특성을 고려한 탁월한 안전관리 방안",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며 호평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축산인연합회 창립

문화화 축산인 350여명 참석...축산업 활성화·축산인 권익증진 힘 모아

여수시 축산단체는 16일 축산인연합회를 창립하고 축산업의 활성화와 축산인들의 권익증진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사육값 상승과 축산물 소비부진 등 국내외 어려운 축산산업과 더불어 폭염에 따른 가축폐사 등에 따라 산재돼 있는 축산인 단체의 연합체 구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여수시 한우협회, 한돈협회, 육계협회 등 축산인 단체는 지난 5월부터 관내 축산 1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추진방향 등을 구상, 16일 여수문화홀에서 축산인연합회를 창립하고 신입회장으로 이정만 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

한 단체장 및 관내 축산인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인들의 화합의 장과 여수형 축산산업 발전 다짐대회가 열렸다.

여수시축산인연합회는 미향여수에 걸맞은 깨끗한 축산 조성, 여수형 축산산업 육성 등의 의지를 담은 구호를 제창하고 축산농가의 화합과 친환경적 축산산업 육성을 결의했다.

이정만 신임 연합회장은 "이번 연합회 구성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더욱 단합하고 활발한 소통으로 안전축산물의 효율적 생산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여수형 축산산업을 구현해 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